

### 4.27 도지사 보궐선거 후보자 5대 공약

#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일자리 창출 약속

## 업 저소득층 주거복지 개선·최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지정·황 금강산관광 재개 앞장

### 기호1번 한나라당 엄기영

**200만 경제**= 춘천, 원주, 강릉 등 주요 지역을 친환경 고속철도망으로 연결함으로써 강원도 전 지역이 수도권으로부터 1시간대 생활권이 되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수도권의 2,500만 인구가 강원도에서 소비를 하게 만들겠다. 역대부농 1만호, 어민소득 2배를 실현하고, 수도권 맑은 물 공급관 건설과 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 등을 통해 2020년까지 강원도가 인구 200만 경제를 달성하도록 하겠다.



**30만 일자리**= 2020년까지 좋은 일자리 30만개를 만들어 2020년에는 강원도의 고용률을 전국 상위 수준으로 높여준다. 현재 강원도의 고용률은 57.8%로 전국 최하위권이다. 2020년까지 200만 경제를 달성하면 일자리 30만개를 만들 수 있다. 의약·바이오 산업벨트(춘천·홍천), 의료기기 및 농축산 바이오벨트(원주·횡성·평창), 해양바이오·신소재·물류산업벨트(강릉·동해·속초·양양·고성), 신재생에너지 방재산업벨트(태백·삼척·영월·정선), 농업바이오·플라즈마산업벨트(철원·화천·양구·인제) 등을 구축함으로써 권역별 지역특화산업을 균형 육성할 계획이다.

**100세 복지**= 청소년들이 행복하며, 어머니와 아버지가 걱정 없고, 어르신들께서 편안하신 전국 최고의 100세 복지를 달성하겠다. 저소득층 주거복지 대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께 보행보조기를 지급하겠다. 공공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건강한 강원도를 실현하며, 여성건강증진센터 건립과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으로 여성분들의 걱정을 없애겠다.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를 지원하고, 독거노인 안전확인서비스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강원균형발전**= 강원지역을 동해안권, 접경지역권, 폐광지역권, 신수도권, 중부경제권, 올림픽 특구 등 총 6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강원균형발전을 완성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성공, 올림픽 특구 지정을 통한 알펜시아 정상화, 중부권 100만 거점도시 육성,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연내 지정, '폐광지역지원특별법' 연장, 폐광지역 경제자립개발사업의 정부계획화 추진, '접경지역지원법'의 특별법 격상, 영동권 강원도청 제2청사 설치, 양양공항-동서고속도로-동서고속철도 연계 신도시 조성, DMZ 평화생태공원 조성 등을 시행하고자 한다.

**꿈을 이루는 강원교육**= 모두가 꿈을 이룰 수 있는 행복한 학교, 사교육비 걱정 없는 학교,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다. 전국 어느 곳보다 다니고 싶은 학교가 가장 많은 곳으로 만들겠다. 우선, 강원 그린스쿨을 도입하겠다. 그린스쿨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해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게 되고, 친환경 기자재로 학교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게 된다. 또한 초중등 분야 공교육지원을 2배 확대함으로써 사교육비가 대폭 절감되도록 하겠다.

### 기호2번 민주당 최문순

**동계올림픽 유치**= 동계올림픽 성공적 유치·개최를 넘어 개최 이후까지 대비하겠다. 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 흑자 올림픽을 해낼 자신이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동계올림픽 이후다. 경기장 등 올림픽 인프라가 흉물처럼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평창-강릉을 연계한 올림픽 산업단지 조성, 올림픽 국제특구 조성으로 올림픽이 강원도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되도록 만들겠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연내 지정**= 한중일 3국으로 대표되는 동북아 지역은 세계인구의 23.6%, 전세계 GDP의 20.9%, 교역액의 15.2%를 차지하는 가장 역동적인 경제권이다. 그러나 제주를 제외한 6개 광역경제권에서 유독 강원권에만 경제자유구역(FEZ)이 없다. 강원도가 그만큼 홀대받아왔다는 증거다. 중·일·러와의 교역을 위한 동해 북부지역 거점 확보가 시급하다. 반드시 동해안권 FEZ를 연내 지정반도록 하겠다. 동해안이 강원도를 넘어 대한민국 발전의 심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강원도의 '성장'과 인프라 구축**= 강원백년대계의 기반을 준비하겠다. △동해안 남측에 제2의 개성공단 "평화의 공단" 조성 △평창-강릉 올림픽 산업단지 조성 △DMZ, 설악-금강 연계 UN과 함께 "평화의 공원 조성" △방송·영상문화 콘텐츠 한류 타운 "강원 arts 랜드" 조성 △시통팔달 교통망 구축 : 제2영동, 동서고속도로 조속 개통, 중앙고속도로 연장, 동서고속화 철도 조기 착공, 강원순환철도 추진, 양양 국제공항 활주로 500m 증설로 동해안권 국제관문 조성.

**교육 2배·복지 2배 강원**= 교육 공약 : 우리 아이들에게 '결과의 평등'은 줄 수 없을지라도 최소한 '기회의 평등'은 줘야 한다. 아이들 교육비만큼은 절대 아끼지 않는 교육도지사가 되겠다. △교육비 지원을 2018년까지 2배로 확대 △2014년까지 초·중·고는 물론 유치원까지 친환경무상급식 △고교 평준화 지지 △권역별·수준별 특성화 교육 강화. 복지공약 : 복지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다. △복지재정 2배 확대 △2,818개 어르신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확대, 경로당 점심급식 지원 △직장보육시설 확대 설치, 공공보육시설 확충 △장애인 활동지원 보조, 편의시설 확충, 고용 확대 △대학생·군인가족 무료임대 APT 단계적 추진.

**일자리 16만개 실현**= 지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7년 동안 강원도에서는 총 3,038개의 일자리밖에 만들어지지 않았다. 일자리 16만개, 가능하다. 전략산업(바이오, 의료기기, 신소재·방재) 육성과 주요 기업유치로 13만 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 국비와 강원도 재정을 투입하면 어르신들이 노후를 보람되게 보내실 수 있는 일자리 1만5천개가 만들어진다. 대기업 및 중견기업 클러스터 유치를 통한 주부 일자리 1만개, 꼭 해내겠다.

### 기호8번 무소속 황학수

**평창 동계올림픽 반드시 유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150만 강원 도민들이 힘을 모았다. 세번째 도전이다. 이번에는 꼭 성공해야 한다. 동계올림픽 유치 결정은 IOC 위원들이 투표로 결정하는 선거다. 생색내기용 국내행사가 아니라 국제 IOC 선거에서 이길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황학수는 당당하게 요구하겠다. 강원도지사 선거지원용 행사가 아니라 남아공 더반에서 열리는 IOC 선거투표 활동을 요구하겠다.



**원주권 100만 광역시 건설**= 원주(原州)는 강원도라는 이름이 지어진 1395년부터 1895년까지 500년 동안 강원도의 수부로서 강원도 전반을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116년이 지난 2011년 오늘까지 우리 국토 중부권의 거점도시로서, 강원도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계속하여 해오고 있다. 그래서 원주시의 성장은 강원도 전체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 만큼 크고 중요하다. △원주-여주, 원주-강릉 복선전철 조기 착공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원주에 재추진.

**폐광지역 지원에 관한특별법 30년 연장**= 강원도 광산지역은 80년대까지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이끌어 온 중요 발전지역이었다. 하지만 폐광이후 점차 쇠퇴의 길을 겪으면서 현재까지 오게 되었다. 폐광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단순히 자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아니다. 폐광지역의 경제 발전 및 생활, 문화 등 모든 것을 아우르는 특별법이다. 특별법이 제대로 적용되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통계는 다양하게 있지만 가장 간단하게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은 인구통계라고 할 수 있다. 폐광지역의 인구가 전성기로 돌아설 때까지 폐광법의 시한을 연장해야 한다.

**금강산 관광 재개 앞장**= 금강산 관광은 남, 북 관계는 물론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까지 연관되어 수없이 많은 변수가 있다. 지금까지 중정부 차원에서 금강산 관광을 진행하면 국내외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마다 강원도민 의사와 상관없이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다. △금강산 관광, 강원도 차원에서 재개 시작 △북한에 지급하는 금액은 현금이 아닌 농특산물로 제공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로 제공. 강원도가 금강산 관광을 주관하면 속초, 인제, 양양, 고성 4개 시군의 농특산물을 구매하여 입장요금으로 지급하겠다.

**강원도의 물과 공기의 가치를 제대로 받아내겠다**= 대한민국의 물과 공기의 대부분을 제공하고 있는 곳은 강원도다. 또한 야생동식물 등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곳도 강원도다. 순수 자연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강원도에 많은 희생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생명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각종 규제 및 그 규제에 의한 지역민들의 어려움이 산재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강원도가 공급하는 생명의 가치, 물과 공기의 가치를 제대로 받아내겠다.